

# 빛 값기도 힘들다...광주 중기 대출 연체율 급증

### 8월 광주 예금은행 중기 대출 연체율 0.63%...전년비 0.16% 경증

### 9월 법인파산 33건...국내은행 대출 연체율 3년 6개월 만에 최고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광주지역은 전국 평균 연체율을 웃돌면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것이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대우위니아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사태로 광주지역 제조 및 중소기업계가 위기에 놓였다는 점에서 지역경제계의 불안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 대비 0.04%포인트, 전년 동월(0.24%) 대비 0.1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은 7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올랐다. 8월 말 기준 연체율 0.43%는 2020년 2월(0.43%)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전국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5%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2020년 5월(0.59%) 이후 최고 수준이다.

무엇보다 광주지역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 8월 0.63%를 기록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0.77%)과 대구(0.74%), 대전(0.73%)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연체율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경제계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광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년 전 같은 기간(0.47%)에 비해서도 크게 올랐다.

광주는 지난 2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67%로, 2021년 8월(0.67%) 이후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올해 4월과 5월 0.67%를 기록했다가 6월 0.59%로 소폭 하락한 뒤 7월 0.61%로 오른 뒤 요즘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이자를 내지 못한 채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사

태가 덮쳤고,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는 등 위기가 계속되면서 지역 기업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통계정보를 분석하면 광주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사건은 올해 9월 누계기준 33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2건에 비해 50%(11건)이 급증한 것이다.

경기침체로 매출 등 이익이 감소한 상황에서 고금리로 인해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이 크게 늘고, 이에 따라 경영난에 빠진 지역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채 결국 문을 닫는 등 파산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여기에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의 잇단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 등 지역경제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어 한계에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증가할 가능성도 짙은 상황이다.

또 국제 금리가 긴축 장기화와 재정적자 확대 우려 등으로 급등하면서 국내 시장금리와 은행의 대출-예금 금리도 빠르게 오르는 것도 약재다.

별써 한 달 전 3%대였던 주요 시중은행 대출 금리 하단이 4%대로 올라섰고, 상당의 경우 7%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듯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가둬거나 경영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가중될 것이고, 한계에 내몰리는 사례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수익은 악화하고 대출을 비롯해 매달 고정지출비용은 늘면서 빛 값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갈수록 오르는 대출금리와 높아지는 대출 연체율이 지역 중소기업들의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은행, 퇴직연금 수익률 '금융권 1위'

### 원리금 비보장 상품 1년 9.54%~10.59%...시장 트렌드 부합 ETF·TDF 도입 주효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원리금 비보장 상품 부문에서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수익률이 전 금융권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비교공시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올해 3분기 원리금 비보장 상품 부문에서 최근 1년 수익률 기준 퇴직연금 DB형 9.54%, IRP 10.59%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포함한 42개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1위를 달성

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2분기 연속 수익률 1위를 기록하게 됐다. 광주은행은 지난 2분기에 동일 원리금 비보장 상품 부문에서 1년 수익률 기준 퇴직연금 DB형 6.72%, IRP 8.25%로 전 금융권 1위를 기록했다. 3분기에도 1위를 달성하면서 광주은행의 연금자산 운용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런 성과는 광주은행이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ETF(상정지수펀드) 및 TDF

(타켓데이트펀드) 등의 상품을 적극 도입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익률에 민감한 고객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 수익률 관리 서비스가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항후 퇴직연금 전용 상담센터를 신설해 고객의 자산을 더욱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상품 수익률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농협 전남본부, 영암 고구마 농가 일손돕기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와 서영암농협(조합장 김원식)은 25일 영암군 미암면 소재 고구마 재배 농가를 방문해 고구마 수확 등 농촌 일손돕기를 진행했다. (사진)

이번 봉사활동은 수확기를 맞이한 고구마 농가를 돕고자 전남농협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했다.

고구마 수확 이후 봉사자들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영농폐기물 현장 소각 방지를 위해 인근 농가의 영농폐기물 수거작업도 펼쳤다.

박종탁 본부장은 "올해 고구마 생산량도 줄었지만 상품성이 좋은 중간 사이즈의 고구마 생산 비율도 낮아져 걱정이 앞선다"며 "농협의 농산물 유통과 판매사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농가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청년 2명 중 1명 일자리 없어 '무직'

### 최근 5년간 경제활동 참여 안해...“전공 살리는 월 200만~300만원 전문·사무직 원해”

우리나라 청년 절반은 최근 5년 동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쉬는 청년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광주경제자유협회(회장 양진석)에 따르면 이날 한국경제자유협회는 2018~2022년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청년층(15~29세) 2명 중 1명은 비경제 활동인구로 파악됐다. 5년 평균 비경제활동 청년은 462만1000여명으로, 이들이 전체 청년 중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2.1%에 달했다.

청년들의 경제활동 미참여 이유는 "정규교육 기관 통학"이 5년간 67.7~72.7%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이라고 답한 이들 지난해 38만2000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5년간 그 비중은 2018년 6.6%, 2019년 7.9%, 2020년 9.8%, 2021년 9.8%, 2022년 8.9% 등 증가세를 보였다.cm

'쉬었음'의 이유로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가 가장 많았다.

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중대한 질병·장애'는 없지만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음'을 주된 이유로 꼽은 것과 차이가 난다.

또 비경제활동 청년 절대다수는 임금 근로를 희망했는데, 취업 시 '적성·전공'을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코로나19 여

파로 취업이 어려웠던 2021년엔 '일자리 안정성'을 가장 큰 고려 요소로 꼽은 청년들이 많았다.

임금 근로를 희망하는 비경제활동 청년이 취업 시 받고 싶은 월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선호하는 직업군은 전문직에 이어 사무직이었다.

가장 취업하고 싶은 업종은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 행정',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순이었다.

최윤희 경총청년ESG팀장은 "청년들이 적성과 전공에 맞는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의 고용지원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는 적극적 고용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렘피스킨병' 발생 1주일...한우 도매가 10% 경증

충남, 경기 등에서 가축전염병인 '렘피스킨병'이 발생하면서 1주일 만에 한우 고기 평균 도매가격이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kg당 2만53원으로, 렘피스킨병 발생 이전인 1주일 전 1만723원과 비교해 13.1% 올랐다.

이달 매주 화요일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1만 6000~1만7000원대 수준을 유지했으나, 렘피스킨병 발생 이후인 전날에는 2만원을 넘는 것이다. 한우 고기 도매가격이 kg당 2만원을 넘는 것은 최근 한 달 새 처음이다.

kg당 소비자가격은 1등급 등심 기준 17일 9만 2760원에서 전날 10만2500원으로 8.1% 올랐다.

이는 렘피스킨병 방역 조치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 불안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렘피스킨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2일 오후 2시까지 전국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후 일부 지역에 한해 명령 적용 기간을 연장해왔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방역 상황 브리핑에서 "이동중지 기간 중에 도축장으로 출하돼야 할 소가 단기간으로 출하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며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렘피스킨병 발생이 전반적으로 한우 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는 소 356만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현재까지 살처분한 소는 1000마리 정도로 비중이 미미하다. 또 지난 7월 기준 한우 고기 재고량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39.6% 증가해 충분한 상황인 만큼,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렘피스킨병 확진 사례는 지난 20일 처음 발생한 이후 이날 오전 8시까지 모두 29건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 광주세무서 13일부터 임시청사 업무 개시

### 동구 대인동 청원빌딩 임차 신청사 2026년 하반기 완공

광주세무서(서장 나향미)가 다음달 13일부터 임시청사로 자리를 옮겨 업무를 개시한다.

25일 광주세무서에 따르면 청사가 노후화로 안전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광주시 동구 호남동 현 부지에 청사 신축을 진행 중이다. 신축 규모는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8160㎡(약 2500평)으로, 2026년 하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세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광주시 동구 대인동(중앙로209) 청원빌딩(1-8층)을 임차해 임시청사로 사용한다.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0일부터 12일 주말을 이용해 집기류 등을 이전할 방침이다.

이전할 임시청사 1층은 민원실, 2층은 국제신고안내센터, 3층부터 8층까지는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 조사과 등 사무공간이 배치된다.

임시청사에서는 기존에 부가, 양도 등 세목별로 나누어져 있던 '신고안내창구'를 '국제신고안내센터'(2층)로 신설·통합 운영해 납세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나향미 서장은 "임시청사 이전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전 소식을 알리고 있다"며 "다만 구도심의 특성상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문제가 있어 세무서 방문시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디지털 전환 세미나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동원)는 25일 한국산업지능화협회, 광주경제진흥원 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와 함께 디지털 전환(DX)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디지털 혁신을 준비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공공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SK㈜ C&C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DX 추진방향에 관한 특강을, SKT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시킨 마케팅 노하우와 사례를 발표했다.

또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진행석 박사가 '해외 중소기업 DX 사례 및 소상공인용 DX 전략 제안'에 대해 설명했고, 멘탈보다 박연경 대표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특강 이후에는 네트워킹과 상담회를 통해 연사 기관과 참여기업 관계자 간에 디지털전환을 주제로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한 식품제조기업

은 온라인마케팅의 낮은 마진율을 극복할 틈을 질문하기도 했고, LED 제조기업은 소상공인이 DX를 활용해 틈새시장을 공략할 방법을 묻기도 했다.

이동원 본부장은 "무역협회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혁신과 이를 통해 수출 기업화하는 전 주기적 성장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63.17(-20.34)
↓ 코스닥	770.84(-14.02)
↑ 금리(국고채 3년)	4.038(+0.034)
↑ 환율(USD)	1349.70(+6.60)



### 가전이 예술이네

아트 페니처 디자인 그룹 '슈퍼포지션'이 25일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한옥 갤러리 '지우한'에서 냉장고·인덕션·식기세척기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28일까지 자유관에서 슈퍼포지션과 함께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 <삼성전자 제공>